"우리 국민을 위해,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"

故 이희호 여사 유언 공개 … 동교동 사저, 대통령 기념관으로 "호남인들에 무한한 은혜··· 평화·민주주의 위해 힘 모아주길"

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유언 은 남편인 고(故)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소망이기도 했던 '남북 통일'이었다. 이희 호 여사는 유언을 통해 "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,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 해 기도하겠다"고 밝혔다.

이 여사는 지난해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 데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 김 성재 상임이사가 11일 발표문을 통해 공개 했다.

이 여사는 "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 중 대통령과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 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"며 "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 를 바란다"고 기원했다.

생전 이 여사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"우리가 한번이면 됐지 또 전쟁을 해 서야 되겠는가. 그렇다면 대화하고 협력하 는 햇볕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"고 강조했다.

당시 인터뷰에서 이 여사는 "남편이나 저 는 호남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입었다. 호 남인들은 위기 때마다 남편을 일으켜 세워 주고 격려해주었다"며 "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 시길 바라는 마음이다"고 말했었다.

이 여사는 또 "동교동 사저를 '대통령 사 저기념관'(가칭)으로사용하도록하고노 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"고 유언했다.

이 여사는 유언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김성재 상임이사에게 부여하면서 "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을 위한 김대중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기 달라"고 당부했다.

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상임이사는 발표문에서 "이 여사님의 장례는 유족, 관 련단체들과 의논해 김대중평화센터 주관 으로 '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



1922년 태어난 이희호 여사는 대표적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다 1962년 고 김 전 대통령과 결혼해 정치적 동지로서 격변의 현대사를 함께했다. 사진은 87년 11월 평민당 김대중 후 보 서귀포 유세장에서 부인 이 여사가 단상에서 지원연설을 하는 모습.

회장'으로 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그는 "유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다"고 전했다.

그는 "이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사 람들,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하시 고,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 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하시다가 소천하 셨다"고 강조했다.

김 상임이사는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 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문을 낭독한 후 "이 여사님이 지난 3월 20일 입원해 83일간 병원에 계셨다"고 설

이어 "노환을 조금 회복해 사저로 돌아 갈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. 노환 이 아닌 다른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"고 부연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'1세대 여성운동가' … 평생을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

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178-9번지 자 택 대문에는 '김대중' '이희호'라고 쓰인 문패가 나란히 걸려 있다. 이 공동문패는 김 전 대통령이 아내이자 동지로 곁을 지 다. 켜준 이희호여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 은 징표로 유명하다.

"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 데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."

이희호 여사가 지난 2016년 출간한 '이 희호 평전'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. 이 여 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이전에 여성지식인, 여성운동가로서 평생 여성 인 권 신장에 힘쓰며 한국 여성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그녀는 이화고등여학교(이화여고 전

신)와 이화여자전문학교(이화여대 전 신), 서울대 사범대를 거쳐 당시 드물게 미 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여성운동가였

이 여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박사, 여성교육자 황신덕 여사, 헌 정 사상 첫 여성 당 대표(민주당)가 된 박 순천 여사 등 당대의 엘리트들과 함께 여 성운동 '1세대'로 활약했다. 지난 1950년 대한여자청년단 결성과 1952년 여성문제 연구원(현 여성문제연구회) 창립을 주도

1959년에는 대한YWCA연합회 총무를 맡았다. YWCA에서는 '축첩자를 국회에 보내지 말자'는 캠페인에 나섰고, 남녀차 별적 법조항을 수정하는 데 힘썼다.

이 여사가 핵심이 된 YWCA의 이런 활 동은 1989년 남녀차별적 내용을 일부 고 친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고 훗날 호 주제 폐지로까지 이어졌다.

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청 와대에 들어온 후에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.

'페미니스트'인 이 여사에게 평생에 걸쳐 받은 영향으로 김 전 대통령 역시 여성 문 제에 관심이 컸기에 국민의 정부는 적극적 인 여성 정책을 폈다. 여성부가 신설되고 부처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됐다.

김 전 대통령 취임 이전 50년간 1명에 불 과했던 청와대 여성 비서관이 국민의 정부 5년간 10명으로 늘어났고 여성장관도 여 럿 배출되는 등 여성의 공직 진출도 확대

됐다. 1998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이,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법이 각각 시행 되기도 했다.

이에 '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뒤에는 이 희호가 있다'는 말까지 나왔다.

이 여사는 이화여대 출신 재야인사 등을 중심으로 여성 정계 진출의 문호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, 여성계 출신 정치인들 과 꾸준히 교류하기도 했다. 대표적인 인 사는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총리와, 2002년 총리 후보 로 지명됐던 장상 전 총리 서리 등이다.

박영숙 전 평민당 총재 권한대행도 이 여사와 각별한 사이였다.

국민의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 낸 신낙균 전 의원과 여성특별위원장을 역 임한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, 이미 경 전 의원 등도 이 여사와 교류가 있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광주·전남 시도민 이희호 여사 애도

광주시청 ·목포 남악중앙공원 등에 분향소 설치

광주시와 전남도는 이희호 여사가 별세 한 지 이틀째인 11일 각각 분향소를 설치 하고 추모객들을 맞이했다.

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청사 1층 시민홀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. 장재성 의원 등 시의회 의원들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도 합동 참배했다.

이 시장은 이날 애도문을 내고 "고인은 불의와 독재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한 투사였으며,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 뜻하고 자상한 어머니였고, 어려운 이웃들 의 동반자였다. 당신의 치열한 삶 자체가 '행동하는 양심'이었다"고 고인을 떠올렸 다. 이 시장은 "우리는 영원히 김대중 대통 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을 기억하며, 당신들 의 삶과 뜻을 이어가겠다"고 다짐했다.

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시청 시민홀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객들을 맞이한다.

전남도도 이날 이희호 여사의 별세를 전 도민들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남악중

앙공원 김대중동상 주변에 분향소를 설치 했다.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분향소 를 찾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분향했 다. 전남도는 발인일인 14일까지 일반 도민 들이 분향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
김 지사는 이날 '이희호 여사님을 떠나 보내며'란 제목의 추모 글을 통해 "또 한 분 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냈다"며 "대한 민국 민주주의와 인권, 통일 운동에 큰 족 적을 남긴 여성 지도자로서, 또 엄혹한 군 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김대중 대통 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평생 흔 들림 없는 길을 걸어온 이희호 여사의 삶 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추모하고, 명복 을 빈다"고 밝혔다.

이희호 여사 분향소는 광주시 금남로 광 주YMCA, 목포역 광장, 김대중노벨평화 상기념관(목포 산정동), 신안 하의면사무 소 등 광주·전남 곳곳에 마련됐다.

/유형석 기자 chadol@ · /김형호 기자 khh@

文 대통령 "우리시대 대표 민주주의자… 부디 영면하시길"

은 지난 10일 고(故) 김대중 전 대통령 부 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것과 관련, "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"며 고인을 추모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"저는 지금 헬싱키에 있다. (국내에) 계신 분들께서 정성을 다해 모셔주시기 바란다" 고 언급했다.

문 대통령은 "이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

았을 텐데, 그리움이 깊으셨나보다"라며 "평생 동지로 살아오신 두 분 사이의 그리 움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 해봤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우리는 오늘 여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한명의 위인을 보내드리 고 있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여사님은 정치인 김대중

민국 제 1세대 여성 운동가다. 대한여자청 년단, 여성문제연구원 등을 창설해 활동했 고, YWCA 총무로 여성운동에 헌신했다" 며 "민주화운동에 함께하셨을 뿐 아니라,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도 많은 역할 을 했다"고 떠올렸다.

그러면서 "여사님은 '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'

하실 정도로 늘 시민 편이셨고, 정치인 김 대중을 '행동하는 양심'으로 만들고 지켜 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, 민주주 의자였다"고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"지난해 평양 방문에 여사 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 모시고 가지 못해 안타까웠다"며 "평화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, 벌써 여사님의 빈자 리가 느껴진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9일부터 핀란드·노르웨이・ 스웨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16일 귀국할 예정이다. /임동욱 기자 tuim@

▶ 장/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

▶ 인접 맹지도 15만~20만원씩매매됨 ▶ 대학교수, 세무사, 간호사도 공유자임 ▶ 남구, 덕남동 산, 도로접함

▶ 992m², 공유 지분 매매

▶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도서지역, 자연녹지, 그린벨트

▶ 매-4500만원(3.3m²당 15만원)

H.010-6834-7400

금당공인중개사

저희는 매도·교환·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!

팬션·전원주택지

-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㎡ 전망 좋음 4800만원 •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㎡ 1억5800
-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㎡ 1억2천

투자·매도·교환

-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㎡ 교환가능 8천만원
-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㎡ 식당 82㎡ 2억5천 •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㎡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
-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㎡차량진입가 1억6천
-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㎡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• 별장·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㎡ 건평 110㎡ 3억
- 북구 두암동 4차선 950㎡ 병·의원 등 적합 18억7천 •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㎡ 2층주택 4억4천 •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㎡ 커피숍·식당 적합 3억4천

상가건물

-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㎡ 팬션3동 317㎡ 교환가능 8억
-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㎡ 건평 1207㎡ 원룸 30. 지하공실 17억 •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㎡ 건평 712㎡ 1층 가게는 공실 17억
- 충장로 4가 땅 261㎡ 건물 1128㎡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. 25억 •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㎡ 상가주택 357㎡ 매도 5억8천

특급물건

-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㎡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
-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㎡ 팬션2동·식당 건평 700㎡ 은행 3억 매도 6억5천 •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㎡ 전원주택·요양시설 적합 3억3천
-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㎡ 팬션·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
-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㎡ 건평 1748 ㎡ 요양시설 적합 17억 •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㎡ 유통시설·창고 등 적합 6억
-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㎡ 독립생활적합 3억6천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㎡ 건평 989㎡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• 담양군 무정면 땅 3850㎡ 별장 147㎡ 조경완벽 팬션좋음 7억2천
- ☎ 문의 222-4994, 010-2632-5659

서구한전, 농성초교옆문앞

임 야 매 매

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, 55-I, 54번지 20,493㎡ 17억

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95, 95-3 51,475㎡ 23억

010-8443-5165 개 인 직 거 래

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

풍수와 사주(명리)를 한번에~

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,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!

강 (6개월 과정)

- •일 시: 2019. 7. 2(화) 오후7시
- 장 소 :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(무등로478-1: 산수오거리 →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) • 수강료 : 풍수 + 사주 15만원(매월)

▮ 공개강좌

- •일 시: 2019. 6. 25(화) 오후7시
- •장 소: 상동(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)
- •대 상: 누구나 (선착순〇〇명)

컨설팅(전문상담) 분야

- 천기비법 대 공개
- 기감풍수 비법 교육
- 분묘, 이장,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
- 음택,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
- 사업(장사) 부진의 풍수적 진단 사주 교육 및 감정(사주, 궁합, 택일 등)

• 작명(신생아, 개명, 상호 등)

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

010-3146-6370 / 010-2246-1508

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

- 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 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 •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(24시간 상담가능)

NAVER | 채권추심 회수왕

새한신용정보(주) 010-6833-1600

C

직통전화 062)513-4306